

오늘도 우리는 도서관에 갑니다. 도서관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?



파트리시아 코크 무노스 글 | 카리나 코크 무노스 그림 | 문주선 옮김 | 237×295 | 48쪽 | 값 17,000원
979-11-993964-3-2(77870)

★ 키워드 #도서관 #사서 #책 #독서 #가능성

책을 읽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지만, 여전히 책을 통해 마음을 나누고 성장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꿈꾸는 사람들은 존재합니다. 책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까이에서 경험한 어린이는 책 읽는 사람으로 자랄 가능성이 높습니다.

그림책 《도서관에서 생긴 일》은 진심으로 책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서 선생님과, 그 모습을 바라보며 변화해 가는 어린이의 삶을 담고 있습니다. 이 책을 함께 읽으며 도서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, 공공도서관이 왜 필요한지 함께 살펴 보아요.

1. 내가 가장 자주 가거나 가장 좋아하는 도서관은 어디인가요?

2. '도서관'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떠오르는 단어를 3개 써 봅시다.

3. 도서관에 가면 주로 무엇을 하나요? 내가 도서관에서 하는 일을 3가지 적어 봅시다.

①

②

③



4. 도서관에는 내가 좋아하는 책을 신청할 수 있는 '희망도서' 프로그램이 있습니다.
어떤 책을 신청하고 싶나요?

①

②

③

5. 도서관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은 어디인가요?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?

나는 도서관에서 _____ 를 제일 좋아한다.

그 이유는 _____ 때문이다.

6. 만약 도서관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



7. 다음 중 사서 선생님이 하는 일을 모두 골라 보세요.

- ① 도서관에서 사람들에게 책을 빌려 줍니다.
- ② 도서관에서 함께 볼 책을 고릅니다.
- ③ 도서관에서 망가진 책을 고칩니다.
- ④ 도서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만듭니다.
- ⑤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주제별로 소개합니다.

다 골라주세요 *

8. 그림책 《도서관에서 생긴 일》에서 사서 알렉산드리아 선생님은 도서관을 지켜보던 사람들과 심하게 다툽니다.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상상해 봅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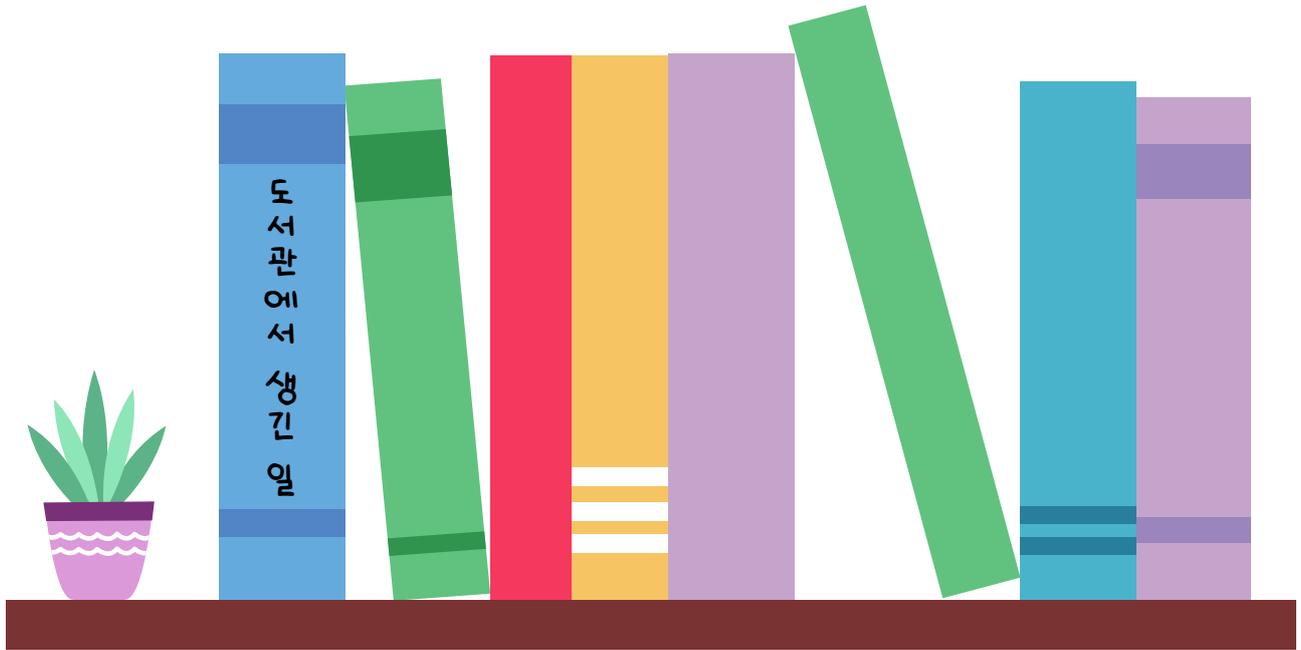
9. 그림책 《도서관에서 생긴 일》에는 레이 브래드버리가 쓴 소설 《화씨 451》의 일부가 소개됩니다. 이 소설은 책과 독서를 금지하고 책을 모두 불태우는 세상을 보여줍니다. 그렇다면 아래의 이미지 속 빈 칸에 들어가는 말은 무엇일까요?



○ 속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언가가 들어 있어. 그 여자가 불타는 집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남아 있도록 만든,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거야. 괜히 불타는 집에 남아 있었을 리는 없어.

✦ 우리 동네 도서관 책장 꾸미기 ✦

만약 내가 우리 동네 도서관의 책장을 채울 수 있다면 어떤 책을 넣고 싶나요?
책등에 책 이름을 적어 봅시다.



✦ 사서 선생님에게 편지 쓰기 ✦

사서 선생님은 도서관에 필요한 책을 신청하고, 어질러진 책을 정리하고, 사람들에게 빌려줍니다. 때로는 망가진 책을 수리하고, 도서관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합니다. 도서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애쓰시는 사서 선생님에게 편지를 써 봅시다.

절취선에 따라 오려서 편지지로 사용하세요.

